



MAGAZIN Vol. 09

프시케 Story

Psyche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 이름으로 갖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이다.

프시케 Story
창간 배경

심리학과, 귀를 기울이다.

2012년 10월,
심리학과 역사상 처음으로 심리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심리학과 발전 계
획안 및 실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3~5
명이 한 팀을 이루어 제출된 많은 아이디어
들은 현 심리학과에 존재하는 문제들과 앞
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학생들의 많
은 생각들을 담고 있다

발전, 소통(疏通)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들 중 과내 소식지 '프시케스
토리'팀 (황제욱.07),(정지연.10),(황해지.10)
이 대상을 받았다. 이 아이디어는 최근 대
학생들의 개인주의적 분위기와 함께 심리
학과 내 소통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내 소식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프시케스토리'는 동기들, 선후배뿐만
아니라 교수님, 대학원-학부생 간의 원활
한 소통을 이끌어 낼 것이라 기대한다.

프시케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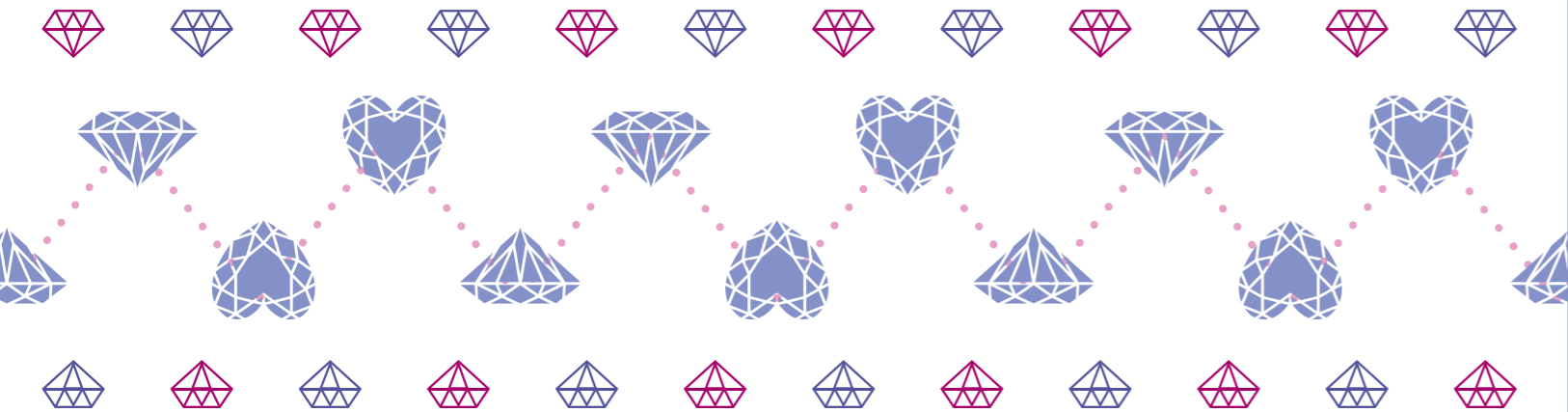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
(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
름다운 공주의 이름으로, 갖은 고난을 거
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을 의미한다.
프시케 스토리에는 학과 행사, 취업관련
정보, 수업 정보, 공지사항은 물론 교수
님과의 대화, 선배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Contents로 구성하여 학과 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리학과 발전 방
향을 제시한다.



프시케 Story
Vol. 09

CONTENTS

- 04 청춘 우리들의 추억 그 아홉번째
- 06 심리학도를 위한 '봉사활동, 스펙, 활동비' 삼위일체 대외활동!
- 08 연구 참가자 모집시스템을 소개합니다.
- 10 Healing의 심리학 아홉 번째 이야기, 심리학으로 풀아라
- 12 Healing의 심리학 아홉 번째 이야기, <더 플랜The Plan>
- 14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 16 사회 신경과학 실험실을 소개합니다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2월 9일 그리고 10일 양일간, 2017년 3월 부산대학교 심리학에 입학 예정된 새내기 친구들과 두근두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9일은 회장단에서 새내기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자료집을 설명하는 시간과 새내기들의 수강신청을 도와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10일은 선배와 새내기 친구들이 한 팀이 되어 부산대학교 캠퍼스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회장단이 숨겨놓은 퀴즈를 풀고, 학교 지리도 익히며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내기 친구들 모두 즐겁게 참여해주고, 학생회 친구들이 잘 준비하고 진행해주어서 즐거운 OT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청춘 우리들의 추억 그 아홉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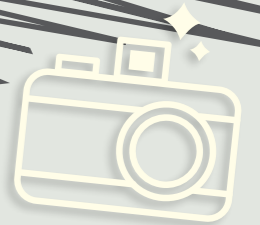
2016학년도 졸업식

2월 24일 성학관 102호에서 심리학과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새로운 시작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엔티

2월 25일 26일 새내기 친구들과 송정으로 첫 엔티를 다녀왔습니다. 팀을 나누어 바닷가에서 피구도 하고 숙소에서 노래 맞추기, 초성퀴즈, 춤동작 맞추기 등의 신나는 게임도 했습니다. 저녁시간에는 새내기 친구들이 직접 장을 봐온 재료들과 게임에서 얻은 요리 기구들로 요리를 만들고 다 같이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선배들과 새내기 친구들의 달빛데이트가 진행되었고, 뒤풀이 시간에는 다 같이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내기 친구들도 잘 따라 주고 선배님들도 즐겁게 어울려주셔서 무사히 첫 엔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대 출범식

3월29일 사회과학대학의 모든 과가 넉넉한 터에 모여서, 2017년 한 해 잘 보내기를 바라며 사회대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사회대 밴드동아리 해방도깨비의 공연으로 시작된 출범식은 각 학과의 학생회장, 부회장의 웅림식과 축하공연, 그리고 새내기 총대, 부총대 친구들의 축하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과별 장기자랑 대회에서 끼 많은 새내기 친구들의 노래와 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술도 마시고 노래도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복엔티

4월 1일,2일 1박2일로 해운대 컨싱턴 리조트로 신입생 복학생 엔티를 다녀왔습니다. 일정소개 후 대학원생들이 준비한 대학원 실험실 소개로 유익한 시간도 보내고 본격적인 레크리에이션시간에는 대학원생과 새내기 친구들이 한 팀이 되어 이구동성, 속담 이어맞추기 등의 다양한 게임을 즐겼습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식사 후에는 새내기친구들과 학생회 친구들이 준비한 공연을 관람하였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함께 신나는 뒤풀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리학도를 위한 봉사활동, 스펙, 활동비 삼위일체 대외활동!

혹시 몰아치는 과제와 시험으로 피곤에 절어 소중한 대학생활을 허비하고 있는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할지 모르겠고,
스펙을 쌓고 싶지만 가벼운 주머니 사정 때문에 함부로 시작할 수 없는가?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심리학과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봉사활동, 스펙, 활동비'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혜자 대외활동"을 지금 소개한다.

김규환기자_sosoday@pusan.ac.kr



한국장학재단 다문화 및 탈북학생 멘토링

한국장학재단이 주최하고 부산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전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다문화·탈북학생 초·중·고등학생 멘티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습, 진로상담 및 문화교류 활동 등의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이다. 도시 기준으로 멘토링 활동 시간 당 12,500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연간 최대 450시간 까지 활동할 수 있다. 우수 멘토로 선정되면 상장과 우수 멘토 장학금이 지급된다. 더불어 멘토링을 진행한 시간만큼 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사업)과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

신청자격 대학교 재학생으로 1년 이상 참여 가능한 자 (지도교수추천서 필수)

모집절차 매년 3~4월에 모집,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

문의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또는 부산대학교 학생과 (051-510-1368)

Tip 6학기 초과 이수한 재학생은 참여할 수 없으므로 미리미리 지원하자. 경쟁률이 다른 대외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11박 12일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료를 위한 가족형 치료캠프. 2-3명의 참가 청소년과 1조를 이루어 멘토 역할을 담당하며 캠프 기간 중 생활지도, 대안활동 및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된다. 멘토 활동을 위한 사전 교육과 캠프가 끝난 후에 진행되는 사후 모임도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 11박 12일의 합숙 기간이 끝나면 1인당 약 8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활동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덧붙여 집단상담 코리더(co-leader) 경험 및 슈퍼비전도 제공받을 수 있으니 상담심리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싶은 학생에게 더없이 좋은 대외활동이다.

지원자격 성범죄 및 아동 학대범죄 전력이 없는 상담관련전공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모집일정 매년 4~5월에 모집,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여름 방학 때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으로 나누어 캠프가 진행된다.

문의 http://www.cando.or.kr/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Tip 11박 12일의 합숙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지원하길 바란다. 캠프 기간 중 금연, 금주는 물론이고 멘토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도 제한된다.



삼성 드림클래스

삼성에서 주최·주관하는 교육지원 대외활동. 학습 의지는 있으나 정규 수업 외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주요 교과목 (영어·수학)에 대한 학습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합격 시 대학 생 강사로 활동하며, 지원 유형에 따라 해당 중학교에 직접 찾아가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는 '주중주말교실'과 방학 기간 중 3주 간 학습캠프에 참여하는 '방학캠프'로 분류된다. 주중주말교실은 시간당 37,500원, 방학캠프는 2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드림클래스 홈페이지에서 활동 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다. 특히 주중주말 교실의 경우, 학교에 찾아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사를 꿈꾸는 학생에게 좋은 경험이 된다.

지원자격 국내 대학교 재학생 (단, 방학캠프의 진행강사는 대학원생도 지원 가능)

모집일정 주중주말교실 - 12월~1월 / 방학캠프 - 5월 중 (여름), 11월 중 (겨울)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강사연수 불참 시 합격 취소

문의 https://www.dreamclass.org

Tip 경쟁률이 매우 높은 대외활동 중 하나! 혼신의 힘을 다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자. 서류 합격 시 면접과 시범 강의를 함께 준비해야하므로 마음을 단단히 먹자!



현대자동차그룹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주최·주관하는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국경을 넘나드는 봉사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청년 리더를 키우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국가에 따라 학교·마을시설 개선과 같은 건축 봉사나 문화재보존 교육, 환경미화과 같은 문화 봉사 활동을 진행한다. 본 프로그램에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해외파견에 대한 모든 비용(항공권, 식비, 숙박비 등)을 지원해준다. 더불어 해외 경험을 갖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며 국내 교통비와 여권 발급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활동 인증서 또한 해피무브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하다.

지원자격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모집일정 1년에 두 번 7-8월(여름)과 11-12월(겨울)에 모집,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지원 국가에 따라 면접 날짜가 다름.

문의 https://happymove.hyundaimotorgroup.com

Tip 경쟁률이 높은 대외활동으로 봉사활동이력이 없다면 최종 합격하기 어렵다. 면접 심사 시 제한 시간 안에 자신을 뽐내는 '100초 스피치'도 해야 한다.

연구 참가자 모집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2017학년도 1학기 연구참가자 모집시스템 관리자

이승민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연구 참가자 모집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에 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승민기자_lesengmin@naver.com




연구 참가자 모집 시스템이란?

연구 참가자 모집 시스템이란 심리학 연구 수행을 위한 참가자를 모집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에서는 Sonasystem과의 계약을 통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참가자 모집 시스템을 운영하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참가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연구에 직접 참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연구 참가자 모집 방식과 달리 참가자의 자율성 및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가자 모집 시스템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연구 참가자 모집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연구자와 참가자에게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자 먼저 연구자는 시스템에 연구를 등록하고 참가자의 신청을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직접 참가자를 모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참가자의 연구 신청 및 확인을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가자를 윤리적인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연구 참가자 모집시스템에 가입하는 모든 참가자는 각자 참가자 ID를 하나씩 부여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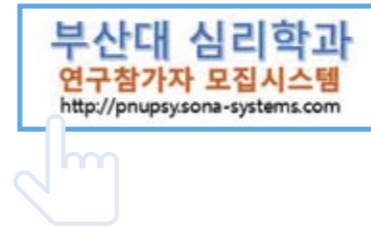
연구자는 해당 ID 외에 참가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연구 참가자 모집시스템에서 이름과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윤리적으로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참가자 또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연구에 참여할 경우에도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원하는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심리학과 연구는 반드시 연구 참가자 모집시스템에 등록되기 때문에, 연구 참가자 모집시스템에 접속하여 심리학과에서 진행되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연구 중에서 자신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연구에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심리학과 학부생에게는 실제 대학원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를 직접 경험하고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접목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자는 오직 참가자 ID만을 통해 참가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가자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참가자들의 실험 참여 정보 및 개인정보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연구 참가자 모집 시스템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연구 참가자 모집시스템은 우선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홈페이지의 연구 참여 탭을 클릭합니다. 그 후 '부산대 심리학과 연구참가자 모집시스템' 배너를 클릭하면 본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하신 후 연구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희망하는 참가자의 가입 절차 및 연구 참여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홈페이지_연구참여_공지&자료 게시판'에 게재된 상세한 매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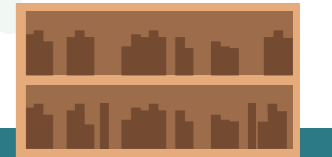
연구 참가자 모집시스템을 이용할 때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연구 참가자 모집시스템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실 경우 유의하셔야 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보상 지급 연구와 크레딧 지급 연구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보상 지급 연구'는 연구 참여 보상으로 유형의 상품을 지급하는 연구입니다. '크레딧 지급 연구'는 현재 수강 중인 과목에 가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참여 점수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연구입니다. 연구에 따라 두 개를 모두 지급하는 것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정보를 잘 읽어보시고, 연구 참여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연구 참여 신청 후 2회 이상 양해를 구하지 않고 불참한 경우 해당 학기에는 연구 참여가 제한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면, 반드시 연구자의 연락처로 불참 사실을 알려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양해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에 불참할 경우 연구자가 원활하고 탄력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한 학기에 2회 이상 '양해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연구에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가자 모집시스템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연구를 수행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자로서 연구 참가자 모집시스템을 처음 이용할 때는 사용해본 경험이 없어서 낯설기도 하고 익히는 데도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수록 더 편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구자의 모집 및 관리가 훨씬 편해졌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참가자들 또한 불참하더라도 양해 사항을 잘 알려주어서 연구의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구 참가자 모집시스템은 여러모로 장점과 특징이 많은 제도입니다. 이번 학기에 처음 도입이 되어 익숙하지 않겠지만, 해당 시스템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인지도가 높아져서 많은 사람이 활발히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ealing의 심리학 아홉 번째 이야기 Part 1 ...

심리학으로 팔아라

드루 에릭 히트먼 지음 | 문희경 옮김 | 갈매나무 | 248p

모든 사람은 매일 수십 번의 소비를 하고, 수많은 광고와 마케팅을 접하면서 삽니다. 여러 광고와 마케팅 기법이 구매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심리학 지식을 이용합니다. 지금 심리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도 광고·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서, 이를 위해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싶어서 심리학을 지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 마케팅 분야의 진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비자심리학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한기 기자_ gksrl97@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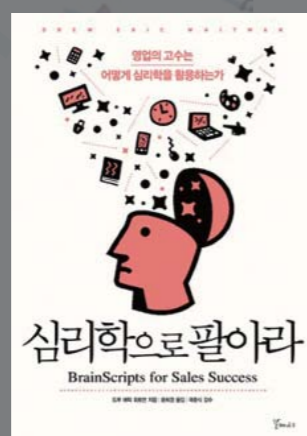


소비자 심리학이란?

소비자심리학은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 사용하고, 없애는 행동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소비자심리학에서는 소비가 발생할 때 일련의 내적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내적 과정에 소비자 개인의 성격, 동기, 태도 등의 심리적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많은 대안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며 그 중에서도 최적의 것을 선택하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또한, 광고, 마케팅 활동, 대중매체와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생각과 태도, 선호 등이 변화하는데, 소비자심리학은 이런 영향을 고려하여 소비자에 관해 연구합니다.



이 책은 마케팅 상황에서 소비자 심리학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일즈의 귀재들은 소비자 심리학을 활용한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게 만드는 효과적인 원리를 써먹을 줄 아는 것이다. ...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팔든 상관없다. ... 잠재고객의 뇌가 주제이지, 뇌에서 구입하라고 지시하는 물건 그 자체가 주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 프롤로그, p14~18 >

저자는 판매하는 제품이 자동차든, 보험이든, 아니면 고구마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방법에는 공통된 원리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21가지 소비자 심리학의 원리들은 각자 다른 심리학적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모두 같습니다. 바로 '소비자의 욕구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뇌에 각인된 욕구를 자극하라!”

소비자의 뇌에 각인된 욕구?



저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추동감소이론”으로 설명합니다. 근본적인 욕구의 불만족이 긴장을 일으키고, 그 긴장을 벗어나려고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써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근본적인 욕구란 무엇일까요?

- ① 생존과 삶의 즐거움, 삶의 연장
- ② 먹고 마시는 즐거움
- ③ 공포와 고통,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④ 성을 나누는 동반자
- ⑤ 안락한 주거 환경
- ⑥ 남보다 우월해지고, 앞서가고, 뒤처지지 않는 상태
- ⑦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
- ⑧ 사회적 인정

이 8가지 욕구는 사회문화적 배경과는 관계없이,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것입니다. 이 욕구들은 사람의 선택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일생에 걸쳐 거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욕구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입니다. 노력을 통해 무효화할 수도 있으며, 생물학적 욕구와 충돌하면 언제나 상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근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광고나 마케팅이 다른 욕구를 자극하는 광고보다 더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게 분명하겠죠?



책은 소비자심리학 원리들을 사용하여 생물학적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각 방법은 실제 마케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예시로 들어 설명되는데, 그 중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구제업자들도 다들 좋은 분들일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분들도 업계의 최신기술을 습득하셔야 해요. 이쪽 업계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 경험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에 도취해서는 안 되죠. 가정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일에서는 그저 ‘제가 이 바닥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잘 쓰세요.’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예방접종의 심리학, p.42)

“... 우선 저희는 다른 애견 미용실처럼 위험한 진정제를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로 미용 테이블에서 무시무시한 울가미로 강아지를 묶어두지 않아요. 강아지가 좁은 테이블에서 떨어지면 울가미가 기도를 막아매서 털이 복슬복슬한 작은 목이 부러질 테니까요.”(공포의 심리학, p.91)

여러분은 제품의 장점만을 짧게 들었을 때와 위와 같은 표현을 함께 들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 같으신가요?

제품의 장점만 나열하기보다는 위에서처럼 여러분의 욕구와 정서를 자극하는, 다시 말해 마음을 건드리는 제품을 선호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인간의 심리를 활용한 마케팅의 원리는 알게 모르게 판매자의 유창한 멘트에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저자는 뛰어난 세일즈맨이 되고 싶다면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제품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비자심리학은 광고·마케팅 분야로 뛰어들려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비자 심리학을 공부하고, 광고·마케팅 분야의 직업을 준비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 Healing의 심리학 아홉 번째 이야기 Part 2 ...

더 플랜 The Plan



다큐멘터리 | 2017.04.20 | 102분 한국 | 15세 관람가 | 감독 최진성

올해의 봄은 그 어느 해보다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5월 10일 마침내 19대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결정을 내릴 때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후보나 정책 사안에 한 표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투표는 도장이 찍힌 투표지가 내 손을 떠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개표'의 과정을 얼마만큼 아시나요? 우리가 행사한 소중한 한 표 한 표들은 어떻게 세어질까요? 과연 우리가 행사한 표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세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와 관련해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더 플랜 The Plan>입니다. 영화는 지난 2012년 대선이 남긴 '숫자' 속 미스터리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과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 수상한 숫자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과학자, 수학자, 통계학자, 국내외 해커들이 실제로 모두 뭉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을 전공하며 열심히 연마한 통계적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것입니다. 영화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자가 유튜브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올려놓았습니다.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영화라고 감히 강력 추천합니다. :)
최숙정 기자_ apple411@naver.com

먼저, 개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끝날 때마다 종료 시점의 시간을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 1 개함부 (투표용지를 차곡차곡 정리한다)
- 2 투표지분류기운영부 (투표용지분류기를 사용해 후보 별로 투표용지를 분류한다)
- 3 심사집계부 (은행에서 지폐를 세는 기계로, 분류된 투표용지의 수를 측정한다)
- 4 검열 및 공표 (정확히 집계가 되었는지 검토하고, 승인을 내린다)
- 5 기록보고 (집계결과를 중앙선거관리 시스템으로 전달한다)
- 6 개표상황표게시 (개표결과 및 개표종료를 선언한다)

문제는 2단계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전자투표를 하지 않고 직접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후보 별로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것은 전자 개표기를 사용합니다. 지난 18대 대선을 되짚어보면 전국 13,500여 개 투표소의 투표함들은 251개의 개표소로 이동됐고, 1,300여대의 전자 개표기에 의해 분류됐습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는 도장이 찍힌 위치를 토대로 투표용지를 후보별로 분류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는 크게 두 가지 군으로 나뉩니다. 첫째, 정상적으로 표를 인식하고, 후보에 맞게 분류되어진 분류투표지와 둘째, 분류기가 무효표로 인식했거나 혹은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건지 모르겠다고 처리한 미 분류투표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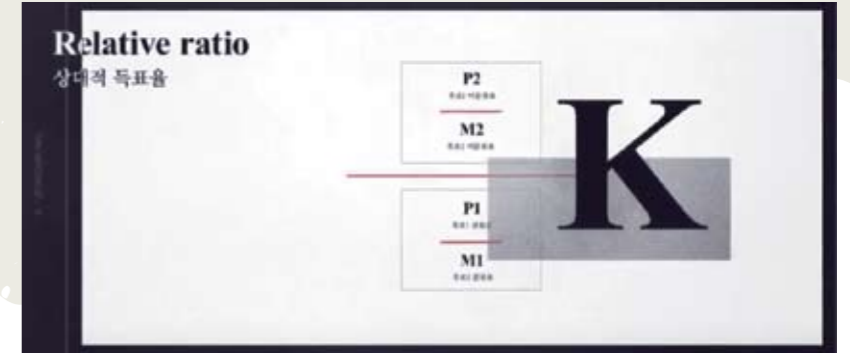


특히 아무런 결함이 없는 정상적인 투표지인데도 불구하고 미분류투표지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계적 오류로 세계적으로도 기본 1%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 대선에서는 무려 3.6%가 발생한 것입니다. 미분류투표지 중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 투표지는 112,360장, 문제가 없이 기계적 오류에 의한 투표지는 무려 1,111,165장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만 확인해도 기계의 결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머, 통계학자 등 전문가들은 말도 안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6%가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이 투표했을 경우 180만 명의 투표지가 미분류되는 큰 수치입니다. 2012년 후보1(51.6%)과 후보2(47.9%)의 투표율 차이는 3.7%였지요.

그렇다면, 이 미분류투표지를 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미분류투표지에서만 후보1의 표가 많이 나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만약 한 영역 군에서 정상분류 투표지의 집계비율이 후보1 55%, 후보2 45%이라면, 미분류투표지의 집계비율도 이와 유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원리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빨간색 구슬과 파랑색 구슬 수천 개가 담겨있는 커다란 용기가 있고, 커다란 바가지, 작은 컵으로 이 구슬들을 열 번씩을 퍼서 다른 용기에 담는다고 가정합시다. 바가지로 담았을 때 빨간구슬과 파란구슬의 비율이 6:4라면, 작은 컵으로 열 번을 퍼들 때도 6:4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분류투표지의 집계 비율은 후보1 65%, 후보2 35%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한 선거구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251개의 선거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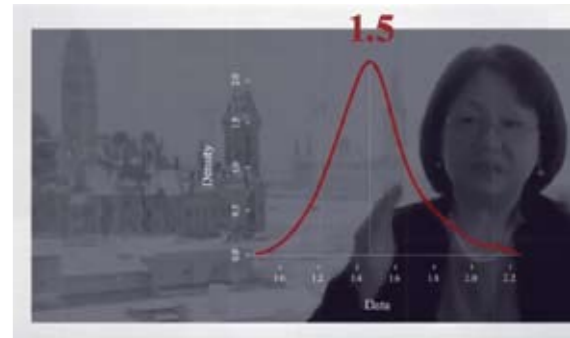


$K = \frac{\text{후보1 미분류투표용지} / \text{후보2 미분류투표용지}}{\text{후보1 정상분류투표용지} / \text{후보2 정상분류투표용지}}$
한 통계학자는 이 같은 현상을 단순하게 분석하기 위해 상대적 득표율 K계수를 고안해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정상분류투표지에서 후보1, 후보2가 55:45로 나오고, 미분류투표지에서 55:45로 나왔다면, $K = \frac{55/45}{55/45} = 1$ 값은 1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정상인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모아 본 결과 모든 선거구의 K계수는 1.5라는 숫자로 수렴했습니다. 정규분포표를 통해 이를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자는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현상이며, 통계학적 용어로 이러한 조작을 디자인 혹은 플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결론 뒤에 나올 수 있는 의문점들을 영화는 후보의 가능성, 컴퓨터 보안의 취약성도 함께 짚으며 국외 전문가들과 실제 실험을 통해 디테일하게 풀어냅니다. 10.26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 최근 랜섬웨어가 전국을 강타한 것만 보더라도 개표 현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조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으니 영화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결국 영화는 우리의 투표 시스템이 충격적일 만큼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것의 단적인 예가 18대 대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걸 보면 투표에 한 번 했다고, 결과는 정해졌고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상의 한 단면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고 비판해 보는 것. 그것을 동력으로 심리학자 빅터프랭클이 "존엄과 자유가 없는 세상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하나의 인간이라는 생각, 마음을 지니고 내적인 자유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인간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한 것처럼 개인으로서의 무력감을 이겨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심리학이라는 학문에서 배운 값진 가치들일 것입니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안녕하세요. 이동훈 교수님께 지도받고 있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이정수입니다.

먼저, 이 글의 목적은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대학원 진학을 강요하거나

설득하기 위한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다만, 대학원이란 무엇인지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경험담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정수기자_ jus1515@naver.com



대학원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나요?

대학원에 진학하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학과 내 다양한 전공의 대학원 과정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대학원생이 하는 공부는 '연구자로서 자신의 가설을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해보고 그것을 논문으로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석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2년간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아이디어를 정교화하기 위해 많은 논문을 읽어야 하고, 적절한 연구 절차 및 도구를 생각하여 실험을 설계해야 하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를 다지는 공부들을 하게 되는데, 전공별로 심화된 수업과 통계강의를 수강하게 됩니다. 학부 수업과 다른 점은 대학원 수업은 발표식 수업이고 토론식 수업이라는 점입니다. 강의목표에 맞추어 교재(대부분 원서)를 읽고 수강생들이 차례대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교수님들께서 보충해 주시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논문을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을 배우고 실험설계를 위한 여러 가지 기초를 다지게 되며 발표에 관한 여러 가지 능력들이 향상됩니다. 대학원 수업은 보통 주 1회로 진행되며, 한 학기에 2~3과목 정도를 수강합니다. 학부수업과 비교해 보면 수업일수가 확실히 적습니다. 그만큼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업 외 시간에 자신의 연구물음을 발전시키고, 관련된 선행연구를 찾아서 비판적으로 읽고, 실험을 어떻게 설계해야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의 제대로 된 실험을 위해서 대학원생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공부해 나갑니다. 이는 그 전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주입식 공부와 질적으로 다른 공부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대학원에서 무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렇다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취업이 아닌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후배들이 궁금해 할 점 중 하나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과 비교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 해보면, 지식을 창출하는 사람이 되어 보았고,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심리학에 대해 보다 깊은 공부를 해 보았다는 점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제가 얻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를 하고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학문적인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것에 비해 이러한 경험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거나 사람의 마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대학원에 진학해 보기를 조심스럽게 권해 봅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대학원 진학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 보기를 권합니다. 공부는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공부가 아닌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개발해보거나 경험해 보지 않고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 되지 않을까요? 더불어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은 연구를 진행하는데도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심리학 연구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가져야 합니다. 취업 준비를 못해서, 혹은 이렇다 할 이유는 없지만 대학원에 진학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와 같은 이유로 진학을 고민하고 있다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정말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친구들이나 동기들은 취업을 해서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이런저런 취미생활도 즐기는데 자신은 돈도 못 벌고 하루 종일 공부 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 공부에서 재미를 느낄 수도 없다면 얼마나 괴로울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를 통해 개인이 가진 물음을 해결하고 싶거나 혹은 심리학 공부를 통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부 전공 교과를 '제대로' 공부하고(특히 통계), 영어논문을 능숙하게 읽을 정도의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학부 4학년이라면,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의 교수님과 면담도 해보고, 가능하다면 인턴생활을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에는 석사를 마친 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학원에서 공부를 잘 한다 해도 인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떨쳐내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취업을 해도 인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또, 취업 준비에 몇 년간 이런저런 스펙을 쌓는 것은 정말로 개인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일까요?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가는 현실에서 몇 년 공부를 더 하는 것에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학부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수준의 심리학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대학원 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 먼저 경험한 경험자로서, 조심스럽게 저의 의견을 이야기 해 보면, 저는 대학원 공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후배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회 신경과학 실험실을 소개합니다.



작년 저희 학과에 설선헤 교수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다들 교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설선헤 교수님과 사회 신경과학실험실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아직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해보지 못한 친구들과 사회신경과학실험실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인터뷰가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주 기자_ wlsdk0805@naver.com
조수빈 기자_ fl_at@naver.com

Q 교수님, 사회심리학은 어떤 분야인지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심리학 분야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A 사회심리학은 인간의 행동 중 사회적 행동에 관심을 두는 학문입니다. 사회적 행동, 즉 대인관계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상황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의 다른 분야들이 개인 내의 심적 과정에 주로 관심을 둔다면, 사회심리학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외적 요인인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에서는 공감, 대인관계, 대인 지각, 타인의 인상 판단, 어떻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상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매력과 호감을 느끼는지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회신경과학 분야에서는 사회심리학에서 기존에 연구했던 행동들의 신경기전을 밝

힙니다. 사회적 영향력 아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회적 정보 처리 과정의 기저에 있는 신경학적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연구합니다.

Q 사회신경과학 분야는 생물심리학과 사회심리학이 융합된 학문이군요. 교수님은 어떤 이유로 사회신경과학 분야를 전공하신건가요?

A 인간의 행동 중에서 가장 관심을 두었던 분야가 사회적 행동이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때 반드시 사회적 맥락을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심리학의 주제들에 이끌렸습니다. 동시에 신경과학으로 인간의 정신과정을 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나아가 세포생물학과 분자생물학으로 사회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사회신경과학이 생겨나기 시작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기술이 필요한 학문인 생물심리학을 석사로 전공하며 연구 운동과 같은 단순 의사결

정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숭이의 행동에 대해 연구할 때, 원숭이에게 공감과 동정심을 강하게 느꼈던 탓에 생물심리학을 계속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인간의 복잡한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동물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물이 아닌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기로 결심하였고,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뇌 영상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분야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Q 교수님께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A 저는 이타행동이나 친사회적 행동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공동체에 기여하거나 타인을 돕기 위한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과 관련된 신경기전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현재는 도움행동, 기부행동, 협동과 같은 행동 자체에 대한 연구와 그러한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뇌의 변화를 연구합니다. 또한 친사회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

소인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이 어떻게 가능한지 뇌 신경학적인 수준으로 접근하고, 공감에 대해 연구하며, 나와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의 차이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감이나 나와 타인의 구분이 친사회성과 어떻게 관련되어있는지에 대해서도 뇌 영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하셨던 연구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연구가 있으시다면 소개해주시겠어요?

A 내측 전전두피질의 활동에 따라 친사회성의 개인차를 밝힌 연구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했던 질문에 대한 연구였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측 전전두피질은 이익이 되는 정도를 선택의 가치에 반영하는 영역으로, 타인을 도울 때 타인의 이익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연구 결과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타적인 사람은 뇌의 동일한 영역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의사결정을 확연히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정말 재미있는 연구들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사회신경과학실험실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꼭 한 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교수님, 사회신경과학실험실은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가요?

A 아직까지 실험실이 정비되지 않아 많은 연구들이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도덕적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도덕적 위반 행동을 한 사람이 내집단인지 외집단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연구와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상황 요인과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이타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 사회신경과학실험실에서는 사회적 행

동에 대한 연구들이 장기적으로 뇌 영상 연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행동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감능력이 협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Q 보통 저희 학과는 인턴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사회신경과학실험실 인턴은 학과 홈페이지에 올려서 뽑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사회신경과학 분야가 융합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전공생들이 많이 진입하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문을 넓혀 다양한 전공생들이 어울리면 좋겠다는 취지로 학과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Q 사회 신경과학실험실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이나,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A 신경생물학이나 생물학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마음가짐과 실질적으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능력, 통계 지식,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혹은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학부 교육 수준에서 다양한 자질을 갖추기는 어렵더라도 통계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수강했던 친구들, 수학적 접근이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나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사회신경과학실험실은 앞으로 계속 어떻게 변화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사회 신경과학실험실의 지향점이 궁금합니다.

A 사회심리학은 워낙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범죄심리, 정치심리, 사회조사전문가와 같은 응용 분야도 다양합니다. 저희 사회신경과학실험실의 지향점은 좋은 연구를 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행동을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실험사회심리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을 통한 사회적 행동의 연구가 궁극적으로는 뇌 영상 연구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향후 집단행동을 실험실 상황에서 연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국내 사회신경과학 연구를 이끄는 연구실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이 심리학과 친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심리학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모든 학문 분야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리과학은 허브(hub) 학문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융합 시대에 여러 학문 분야의 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이라는 틀에 갇혀서 생각하기보다 열린 사고와 융합적인 자질을 갖추고 여러 학문을 접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부 시절에 다양한 수업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 전공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으므로 경험을 많이 쌓기 바랍니다.

설선헤 교수님과 사회 신경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저희는 실제 사회신경과학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원 선배를 만나봤습니다.

Q 사회신경과학실험실에 입학하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저는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설선헤 교수님의 대학원 수업이었던 '사회심리학 특론' 수업을 청강하게 되었습

니다. 수업을 통해 학부에서 배운 주제를 심화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토론하면서 사회심리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던 주제들이 집단, 인상형성, 의사결정 등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논문들을 읽고 이해하고 토론을 할 때 제가 전공하고 싶은 분야가 사회심리학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Q 사회 심리학에서 관심을 가지신 분야가 무엇인가요?

A 저는 현재 도덕 판단과 집단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내/외집단의 구분에 따른 도덕 판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Q 현재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A 현재 공감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 중이고, 도덕 판단에 관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어떻게 연구 분야를 정하게 되셨나요?

A 제가 연구 분야를 정하게 된 계기는 군기 문화에 관한 이해에서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현상을 집단 구분만으로도 다르게 판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를 도덕 차원에서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연구 주제를 정하였고 실험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Q 대학원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저는 심리학과 대학원이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오고 싶었고, 대학원에 들어와서 바라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 때는 비교적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을 배운다면, 대학원에 오면 훨씬 최신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연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실험실인 사회신경과학실험실은 사회심리학의 주제를 신경학적으로도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에 흥미를 느끼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연구가 있다면 인턴에 지원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대학원 선배와의 인터뷰 후, 사회신경과학실험실 인턴인 13학번 김소라 씨를 만났습니다.

Q 어떻게 인턴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A 심리학과 홈페이지에 사회신경과학실험실의 인턴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교수님께 메일을 드렸습니다.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아 먼저 교수님께 면담을 요청 드렸고, 왜 인턴을 하려고 하는지, 관심 분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메일을 보낼 때 교수님을 한 번도 뵈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따뜻한 조언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인턴 지원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Q 사회신경과학실험실에서 인턴은 무슨 일을 하나요?

A 저희는 일주일에 두 번 신경과학 스터디와 파이썬 스터디를 하는데, 매주 한 명씩 준비해온 자료를 발표합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랩 미팅을 통해 관심 있는 논문을 발표하고, 각자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모든 인턴이 관심 분야의 연구주제에 대해 교수님과 실험실 사람들의 조언을 얻어 공부합니다. 이 외에도 인턴들은 실험실에서 해야 할 일들을 분담해서 한답니다.

Q 교수님이 인턴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많은 공부를 하는군요. 학부 공부 외에 이렇게 공부

하고 연구를 해 나가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A 처음에 저는 '과연 내가 연구를 하나갈 능력이 되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자극이 되어서,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Q 인턴을 하면서 느끼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A 인턴의 가장 큰 장점은 대학원 생활에 대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랩 미팅을 할 때면 공부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는데, 그만큼 배울 점이 많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장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혼자서는 해내지 못했을 연구를 실험실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 도전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사회신경과학실험실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사회신경과학실험실에서는 공감과 이타심 등의 행동을 신경기저에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사회신경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대 사회신경과학실험실이 국내 사회신경과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연구를 하고 싶다는 교수님의 포부가 다시 한 번 기억에 남습니다. 대학원에 진학을 꿈꾸는 심리학도들이 있다면 사회신경과학실험실 어떠신가요?



2017년 2학기 심리학과 학사 및 행사일정



본 행사 이외에도 추가되는 학과 행사나 일정들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공지를 통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심리학과 학생회 심스틸러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9월 운동회

10월 문창제

11월 부심경심, 문창체전

프시케 스토리 기자단



인지신경실험실 이정수 사회심리실험실 이승민 13학번 정은주 13학번 조수빈 14학번 김규환 14학번 최숙정 15학번 윤기희 16학번 김한기

그동안 프시케스토리는 창간호를 시작하여 이번 9호까지 매 학기마다 하나씩 출간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만든 프시케 스토리는 이제 심리학과 페이스북 그룹페이지와 학과 홈페이지(<http://psy.pusan.ac.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읽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프시케 스토리에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프로젝트 Story

발행일 2017. 6. 14
발행처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사회관 416호)
Tel 051. 510. 1561
Fax 051. 581. 1457
홈페이지 psy.pusan.ac.kr
기획·편집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